

# 걸프전쟁 종전시나리오

- 월스트리트저널 -

**걸프전쟁**은 이제 대규모 살륙이 불가피한 지상전투의 고비로 다가서고 있다. 美國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공중공격과 함께 美해군 전함들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美國방부 수뇌들이 직접 현지에서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형태로 전쟁이 확산될 것인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류 戰史上 또 하나의 대량 살륙의 자취를 남기게 될지도 모를 대규모 본격 지상전을 앞두고 近着 월스트리트저널紙는 美전력가들의 예측을 중심으로 4가지의 전쟁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4가지 시나리오에는 美國등 다국적군의 이라크 본토진입과 후세인의 항복등 극단적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 美紙의 4가지 終戰 시나리오

### ① 다국적군의 원격공격과 지상진입에 의한 이라크군의 궤멸

다국적군의 우세한 공군력과 육·해상의 첨단무기들에 의해 이라크군의 기간통신망과 보급선이 끊어져 쿠웨이트주둔 이라크군이 후퇴 또는 궤멸되는 상황이 다.

후퇴의 경우 전면철수가 예상되고 다국적군의 지상공격의 경우 쿠웨이트주둔 이라크군의 궤멸 및 대규모 포로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 이후에도 對이라크 경제봉쇄 및 후세인 등 이라크 수뇌부의 재판회부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이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며 이 경우 후세인의 정치적 생존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② 후세인 등 전쟁에 책임있는 이라크지도부의 교체

미국 등 다국적군이 계속 원격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절망한 이라크군부내의 쿠데타 등으로 후세인이 실각, 이라크군의 쿠웨이트철수 등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상황이다.

다국적군에 의한 후세인의 암살과 후세인의 전사 등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③ 이라크의 자진철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이란등 회교국가들의 중재노력과 다국적군의 이라크진입을 반대하는 蘇聯등 여러국가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후세인은 서방국가들의 공격을 끝까지 버텼다는 점 등으로 국내에선 물론 아랍제국간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내의 반전여론 및 이라크의 군사력이 완전 붕괴되었을 경우 이란의 세력강화와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항배 등이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④ 전쟁의 교착화와 미국의 패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국적군 내부가 분열한다. 또 이라크의 공격을 참다못한 이스라엘이 참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란등 아랍 몇몇 국가들의 친이라크정책 및 참전등으로 「이라크는 침략군」이라는 명분이 퇴색, 전쟁의 양상이 복잡화·교착화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美國내 반전여론도 고조될 것이며 美國은 상당한 희생을 거친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쟁포기」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은 이란이 중립을 고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참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상황도 가능성은 희박하다.♣